[유안타증권 주식시황 위클리]

주간:知

기존 주도주로 컴백홈 (4월 2주)

이재원 Market Analyst 02 3770 5719 I jaewon2.lee@yuantakorea.com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SUMMARY

기존 주도주로 컴백홈

• 금주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이란간 휴전 협상 기대와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를 반영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간(4/2~4/9) KOSPI, KOSDAQ 각각 10.4%, 1.9% 상승.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지속과 협상 불확실성으로 변동성 국면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순매수로 전환되었지만 방향성 있는 자금 유입이라고 하기엔 아직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결국 지정학적 갈등 종결을 기다리며 다음을 준비하는 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KOSPI 12개월 선행 EPS는 급격히 상향 조정 되고 있으며, 휴전 발표에 따른 지수 급등에도 여전히12개월 선행 PER은 7.5배 이하로 떨어져 과거 20년간 하위 1% 이하 수준의 딥밸류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유가의 안정화 여부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 및 시장금리 하락, 원화 강세,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유지합니다.

•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업종 선택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유가 상승 국면에서 에너지 업종이나 수혜 업종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반도체, 산업재를 필두로 한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자금이 재유입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익추정치 상향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의 정상화가 외국인 자금 재유입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특히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을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에너지 투자를 구조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AI 인프라 투자와 맞물린 전력 수요 증가까지 고려할 경우 원자력, 전력기기,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밸류체인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사라진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에 좋은 시기라 판단합니다. 기존 주도주 중심의 대응 전략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 판단합니다.

큰 우려는 덜었지만…

전쟁이라는 큰 우려 요인 휴전으로 완화되며 금주 크게 반등한 한국 주식시장, 여전히 변동성은 남아있다

휴전 협상 안도

외국인 귀환 + 삼성전자 호실적 + 유가,금리,환율 안정화

한국 주식시장 반등

여전한 변동성

이스라엘 레바논 타격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 협상 결렬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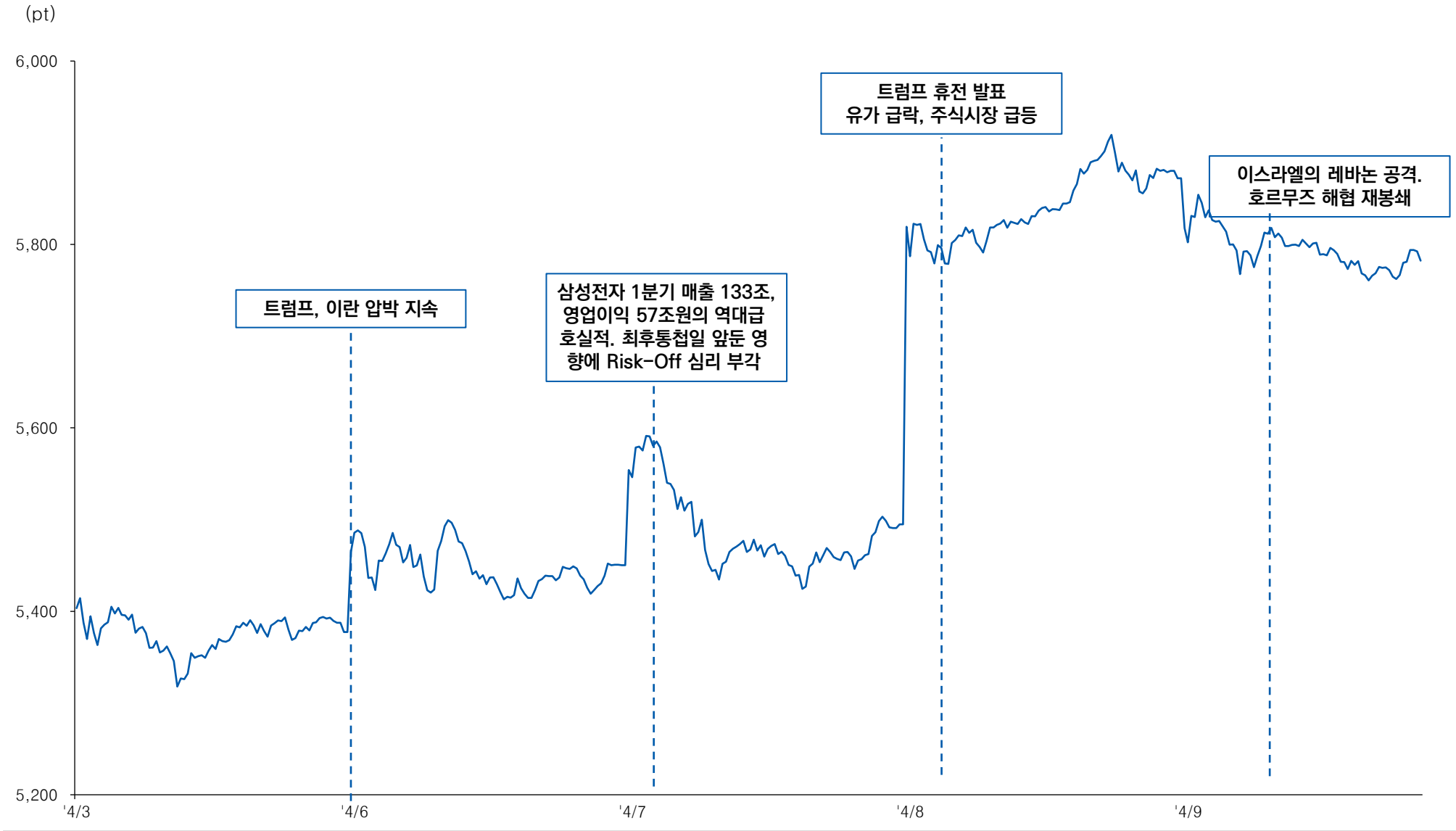
외국인 자금 이탈

변동성 장세 지속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휴전과 삼성전자 호실적이 만든 상승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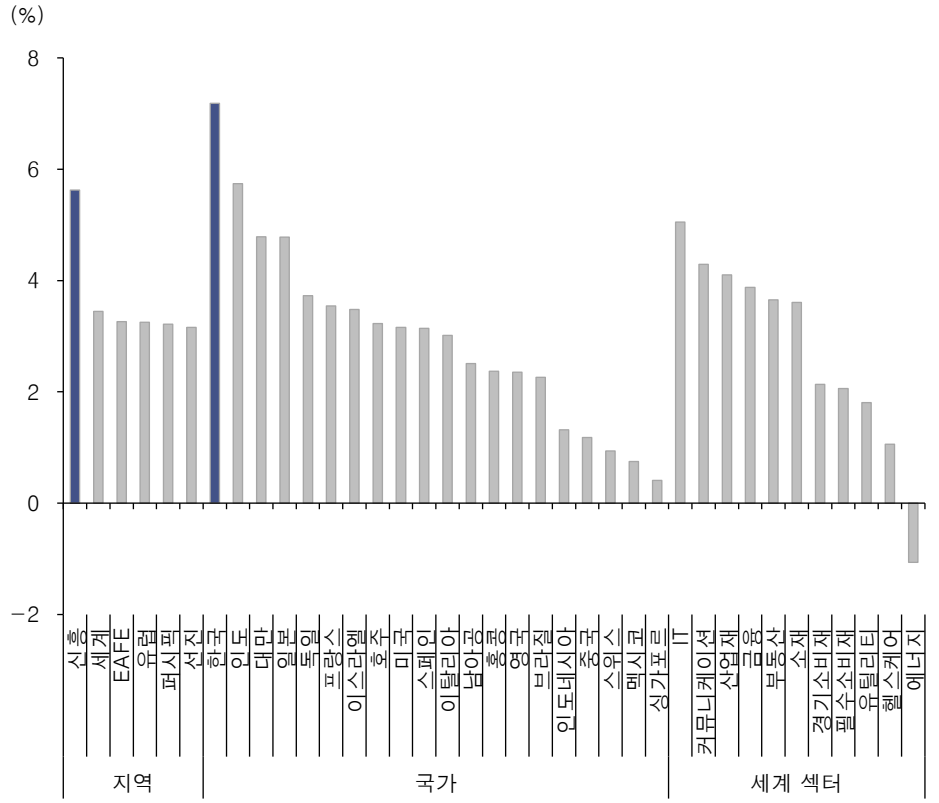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주식시장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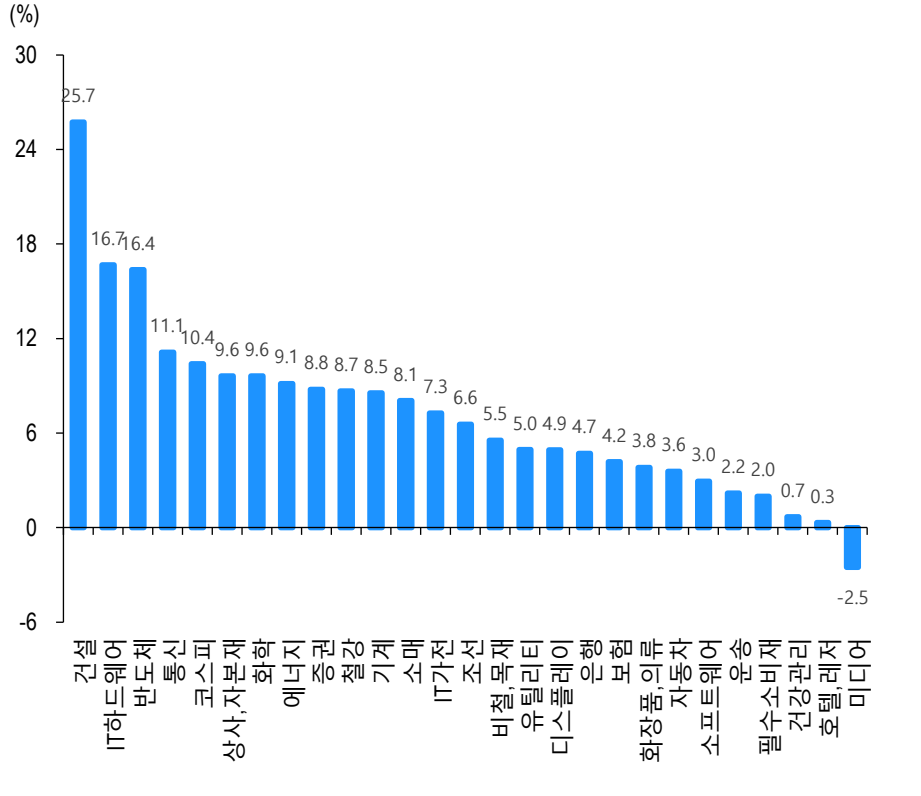
- 주간(4/2~4/9) KOSPI, KOSDAQ 각각 10.4%, 1.9% 상승. 삼성전자 예상치 대폭 상회 호실적 발표 및 미국-이란 2주 휴전 협상 타결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완화 기대감이 작용. 외국인 자금 대형주 중심으로 유입되며 KOSDAQ 대비 KOSPI 강세
- 업종별로 호실적 여파로 반도체 급등했으며 전쟁 이후 재건 기대감에 건설 업종이, 광통신 테마와 앤트로픽 지분 이슈로 통신이 상승
- 세계 주식시장 기준 선진 대비 신흥 주식시장 위험자산 선호심리 속 강세. 낙폭 컸던 한국 주식시장 반등폭도 가장 컸으며 주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1위

주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4월 8일 종가 기준

주간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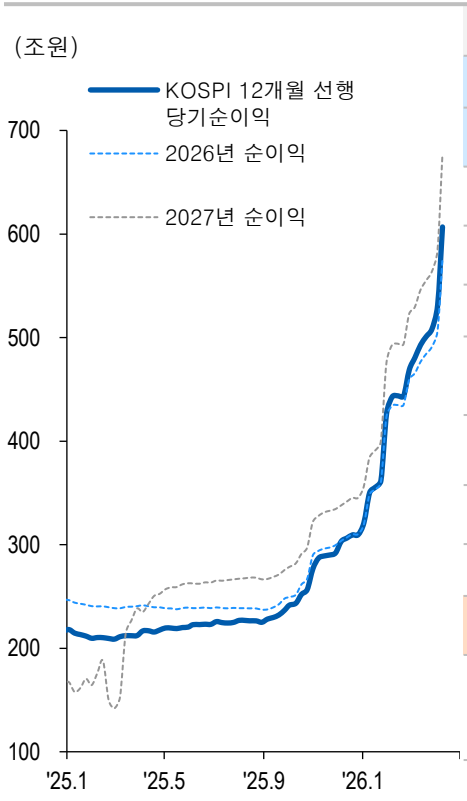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4월 9일 종가 기준

IT 이익추정치 대폭 상향

- KOSPI, KOSDAQ 주간 상승 원인에 이익추정치 상향 동행. KOSPI, KOSDAQ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각각 전주 대비 83조원, 0.1조원 대폭 증가
- KOSPI 83조원 증가분 중 85조원이 IT 섹터 증가분. 업종별로 반도체, 증권, 에너지, IT하드웨어 업종 주간 EPS 증가 상위
- IT가전, 유틸리티, 미디어, 철강, 호텔 업종 주간 EPS 하락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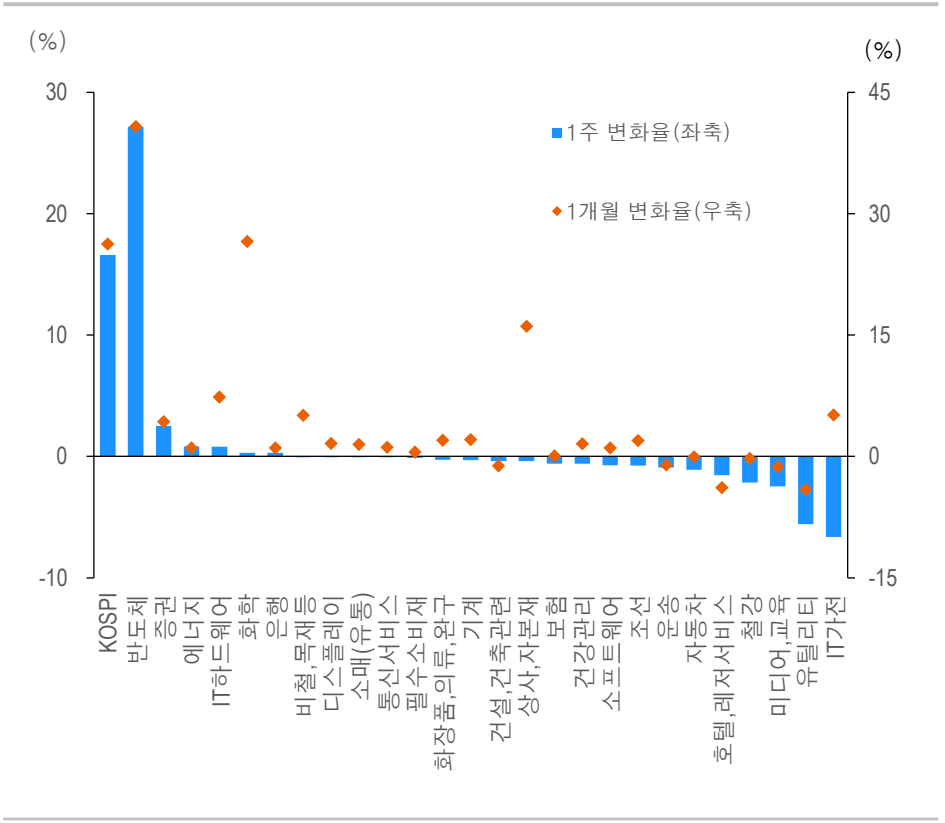
KOSPI, KOSDAQ 섹터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조원)	현재	전주	증감
KOSPI	573.9	490.9	83.0
KOSDAQ	9.6	9.5	0.1
에너지	5.8	5.7	0.0
소재	5.4	5.4	0.1
산업재	62.7	64.0	-1.3
경기소비재	35.6	35.8	-0.2
필수소비재	4.2	4.3	-0.1
건강관리	6.4	6.6	-0.2
금융	45.2	44.8	0.4
IT	396.0	311.0	85.0
커뮤니케이션	10.2	10.3	0.0
유틸리티	11.8	12.5	-0.7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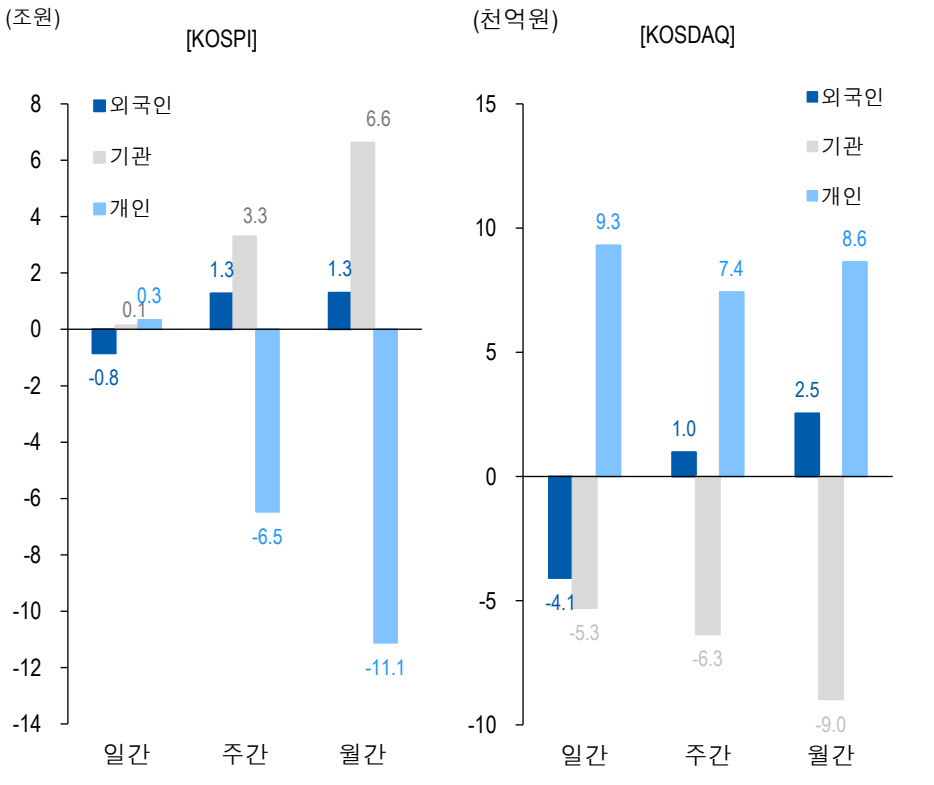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주간 순매수 전환

- 주간 KOSPI 개인 6.5조원 순매도. 외국인 1.3조원 순매수. KOSDAQ 개인 0.74조원, 외국인 0.1조원 순매수. 외국인 KOSDAQ 순매수 지속
-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시총 상위 대형주. 해당 업종들 이익추정치 하향 부재했으나 전쟁 발발 이후 차익실현 성격 매물 출회 지속. 순매수 전환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4월 2일 마감 기준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반도체	건설,건축관련	조선
	상사,자본재	IT하드웨어	자동차
	IT가전	IT가전	소프트웨어
	기계	은행	비철,목재등
	화학	기계	미디어,교육
순매도 상위	에너지	운송	화학
	건강관리	화장품,의류,완구	기계
	조선	소프트웨어	IT가전
	건설,건축관련	반도체	상사,자본재
	비철,목재등	자동차	반도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8일 2주 휴전 협정 ! 협상은 시작되겠으나 양측 의견 대립

이란 측 10대 요구 조건과 미국-이스라엘 반응

번호	이란 측 10대 요구 조건	미국 및 이스라엘 측 공식 입장 및 대응		현재 상태 (4/9 기준)
1	이란에 대한 불가침 확약	원칙적으로 수용	언제든 대응 권리 보유 주장	분쟁 중
2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지위 인정	거부	국제 수역으로 무조건 개방 요구	해협 재봉쇄
3	우라늄 농축 활동 수용	강력 거부	트럼프, “농축 포기 없이는 협상 없다”	합의 위반
4	모든 1차 제재 즉시 해제	조건부 수용	비행화 등 선결 조건 이행 후 단계적 해제	미합의
5	모든 2차 제재 즉시 해제	조건부 수용	비행화 등 선결 조건 이행 후 단계적 해제	미합의
6	UN안보리 관련 결의안 전체 폐지	협의 필요	안보리 이사국(영국, 프랑스)와 협의 필요	미합의
7	IAEA(국제원자력기구) 결의안 종결	협의 필요	사찰관 복귀 및 완전한 투명성 보장 요구	미합의
8	전쟁 피해액 전액 배상금 지급	강력 거부	침략자는 이란 이라며 맞대응	미합의
9	중동 역내 미군 전투부대 전원 철수	조건부 수용	신규 투입 부대 2~3주 내 철군 시사했으나 전략 자산은 지속 유지	유지중
10	모든 전선 휴전	**핵심 갈등**	레바논은 별개라며 베이루트 폭격	공습 지속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간극 핵심 Point

양측 간극 첨예하게 대립. 현재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휴전 협정 위반이냐? 가 쟁점

분류	미국 및 이스라엘 입장		이란 입장		전략적 간극
핵 프로그램	영구 포기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및 60% 농축분(450Kg) IAEA 이관. 주요 핵시설 해체 요구	권리 인정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필수. 농축도 하향은 가능하나 자산 반출은 절대 불가능	★★★★★
호르무즈 해협	완전개방	무조건적 자유 항행. 트럼프는 공동 통행료 징수 제시	통제권 유지	해협 통제권 인정. 이란, 오만 중심의 통행료 부과 주장. 주권 사항으로 간조	★★★★
안보 보장	무력제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수량 제한 및 자위권 한정. 미국의 압도적 군사 지위 유지	비공격 확약	미국 비공격 보장 및 미군 지역 철수 요구. 미사일은 협상 불가능	★★★★★
제재 및 결의	조건부 해제	핵, 미사일 등 요건 이행 시 단계적 해제. 위반시 즉각 원상 복구	즉각 해제	UN, IAEA 결의 즉시 종료. 동결 자산 전액 해제	★★★
대리세력	지원 중단	헤즈볼라 등 지원 중단. 레바논은 휴전 미포함 (밴스)	동시 휴전	레바논 포함 모든 전선 종전. 대리 세력을 지역 안보의 핵심으로 정의	★★★★★★
배상	수용 불가	배상급 언급 거부	전액 배상	전쟁 피해액 전액 배상	★★★★★
외교/기타	이스라엘 존재 인정 및 민간 원전 지원 제안. 관계 정상화 카드 제시		이스라엘의 NPT 가입 및 핵 사찰 요구. 합의의 법적 구속력(UN 결의안) 확보 요구		★★★★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Market Calendar

4월 3주차 주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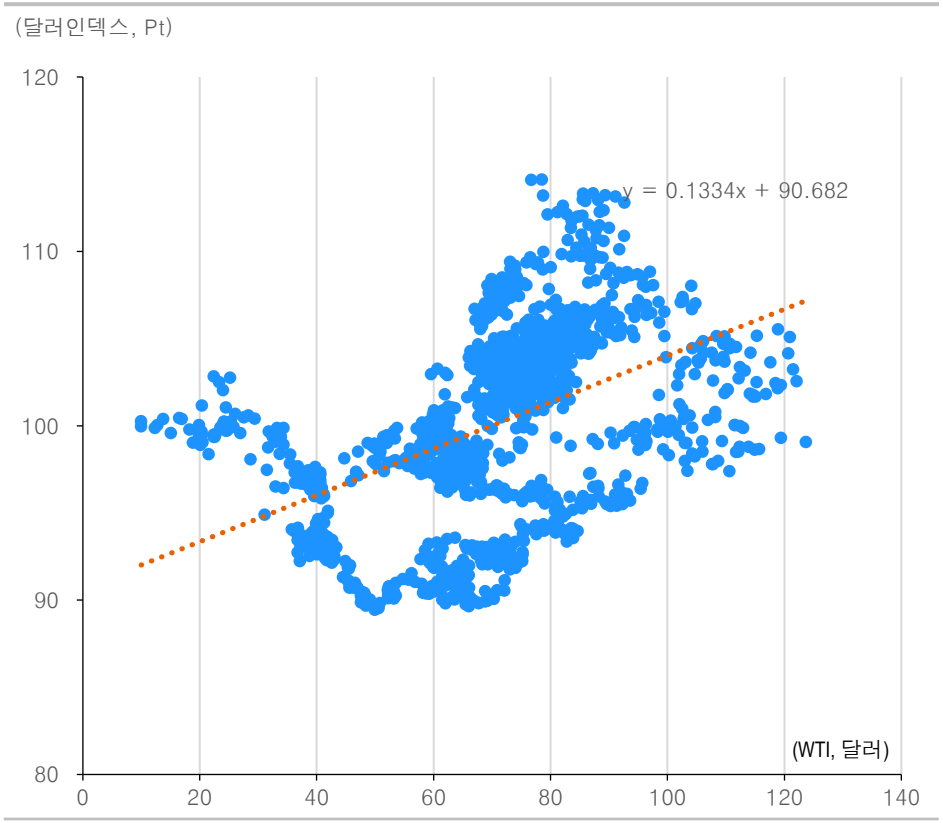
	4월 13일(월)	4월 14일(화)	4월 15일(수)	4월 16일(목)	4월 17일 (금)
경제지표		미국) 3**월 생산자물가,**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	미국) 3월 산업생산	미국) **AACR 개최**
정치	미국)케빈 워시 연준의장 청문회 시작 (한국시간 13일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방한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업		미국)JP모건, 블랙록, 씨티그룹, 웰스파고, 존슨앤존슨	ASML 미국) 모건스탠리	대만)TSMC 미국) 넷플릭스, 알코아, 트래블러스	
주목 Point	한미 기업 실적발표 본격화. TSMC, ASML 등 반도체 기업 포함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 예정. 금요일 열리는 미국 암학회 는 삼천당제약 논란으로 주가 동반 하락한 KOSDAQ 바이오텍에 기회가 될 수 있음. 알지노믹스, 간암 임상 중간결과 발표 예정. 협상 진행 상황과 기업 실적 두 가지 모두 놓칠 수 없다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현지 시간 기준

유가 안정화가 가장 큰 해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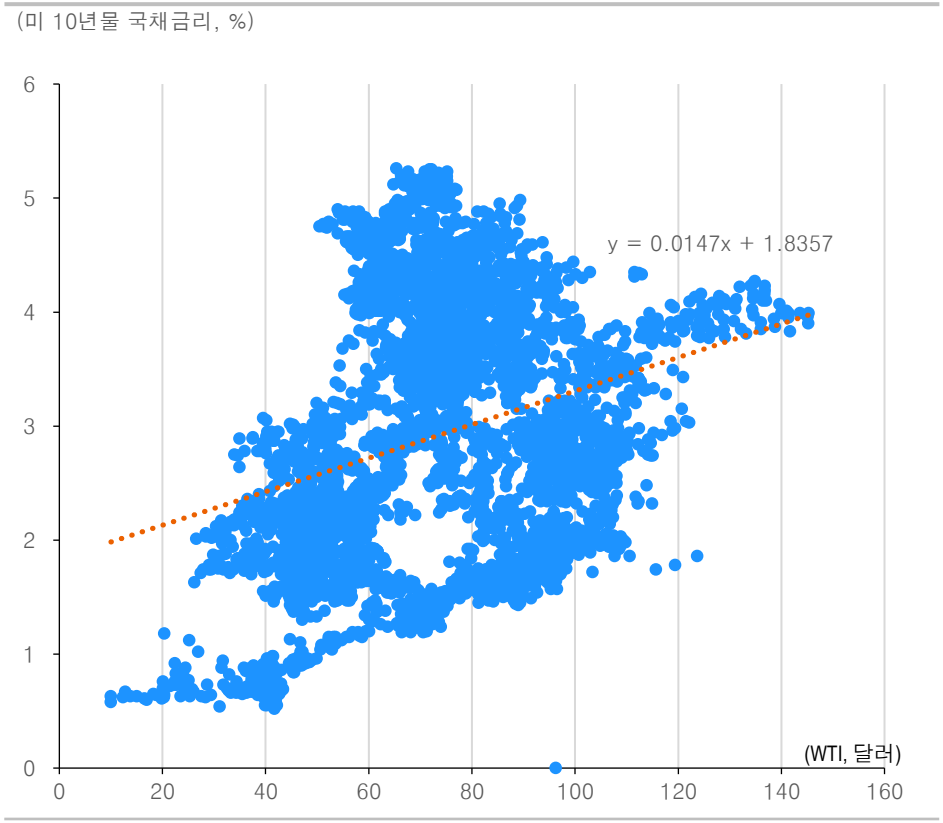
- 2014년 미국 원유 수출량 대폭 증가 이후 달러와 유가 간 양의 상관관계 형성. 유가 하락한다면 원/달러 환율 하락 유도 → 외국인 자금 재유입 기대
- 유가 상승 장기화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안정화 된다면 감소할 전망. 이번주 휴전 직후 유가 급락하며 시장금리도 동반 하락. 페드워치 기준 연내 금리 인하 확률 증가

유가 상승하면 달러 강세(원화 약세). 유가 하락하면? 환율 변동성 완화 !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기간은 미국 원유 수출 본격화 시작한 2014년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도 주식시장에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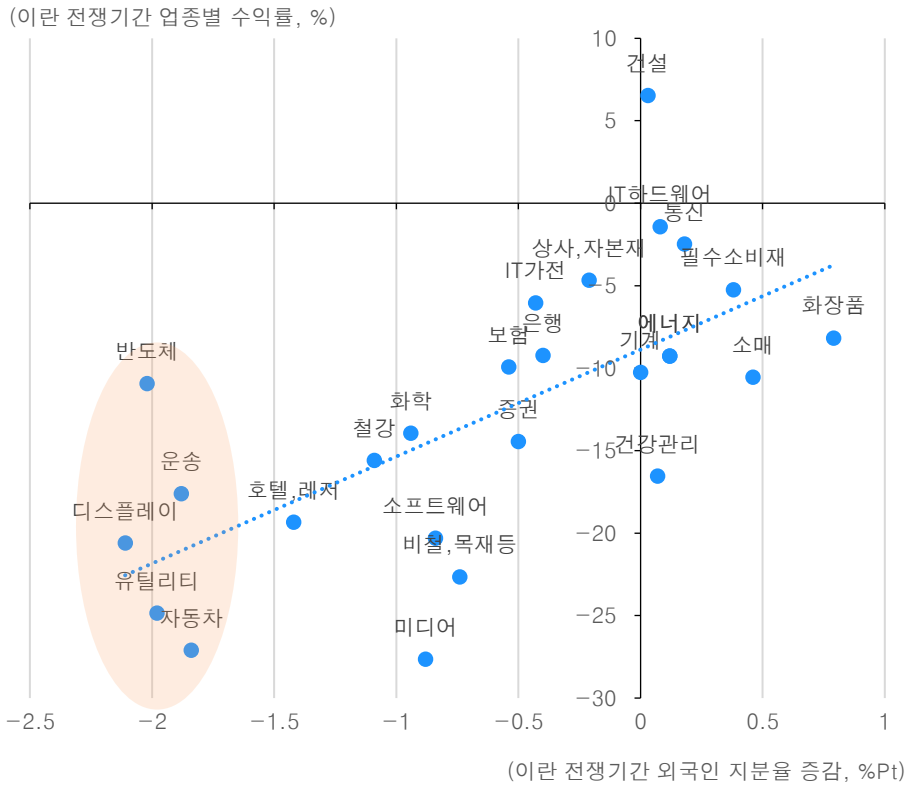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수급 중요한 이유 : 업종 선택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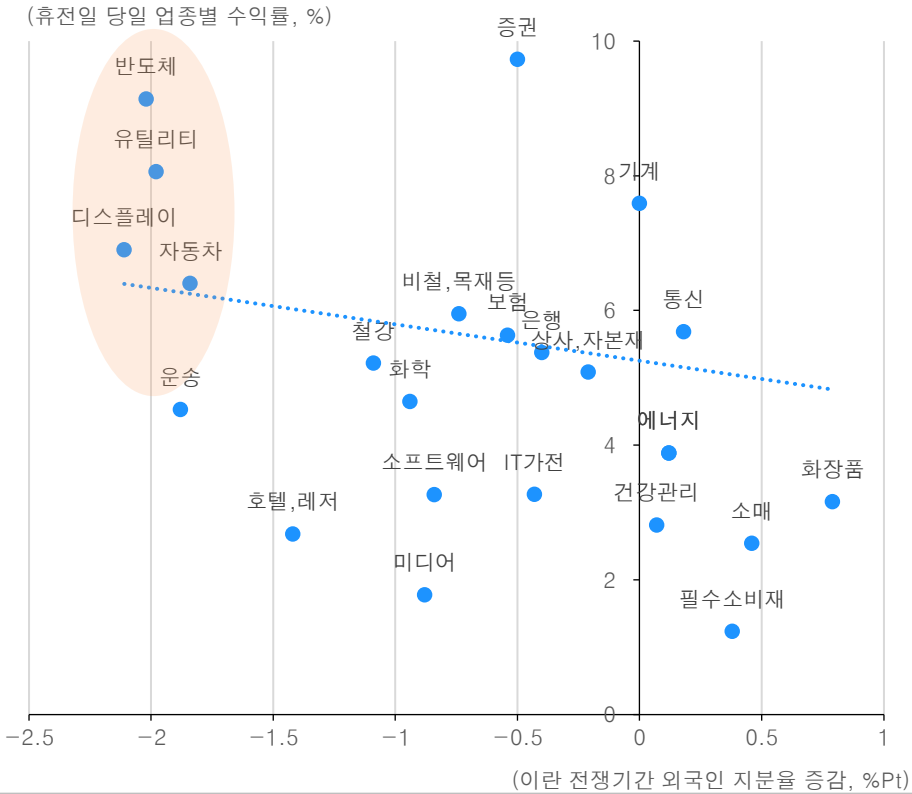
- 결국 주식시장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전쟁 이후 외국인 순매도 주체인 상황에서 외국인 비중 증감과 수익률간 양(+)의 상관관계 형성. 외국인은 반도체, 자동차, 유틸리티 등 대형주 순매도하며 지분율 감소
- 해당 업종 이익 모멘텀 훼손 부재. IT, 산업재 중심 이익 주도력은 실적으로 증명. 전쟁 이전 지수 신고가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판단. '전쟁' 이라는 리스크 감소한다면, 외국인 투자자 복귀 가능. 해당 업종은 기존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수급 여력도 충분한 반도체 중심 대형주

전쟁 기간 순매도 주체 외국인, 업종별 수익률 등락 갈랐다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Reuter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복귀 한다면 기존 차익실현 업종 위주 복귀 기대, 휴전일이 예고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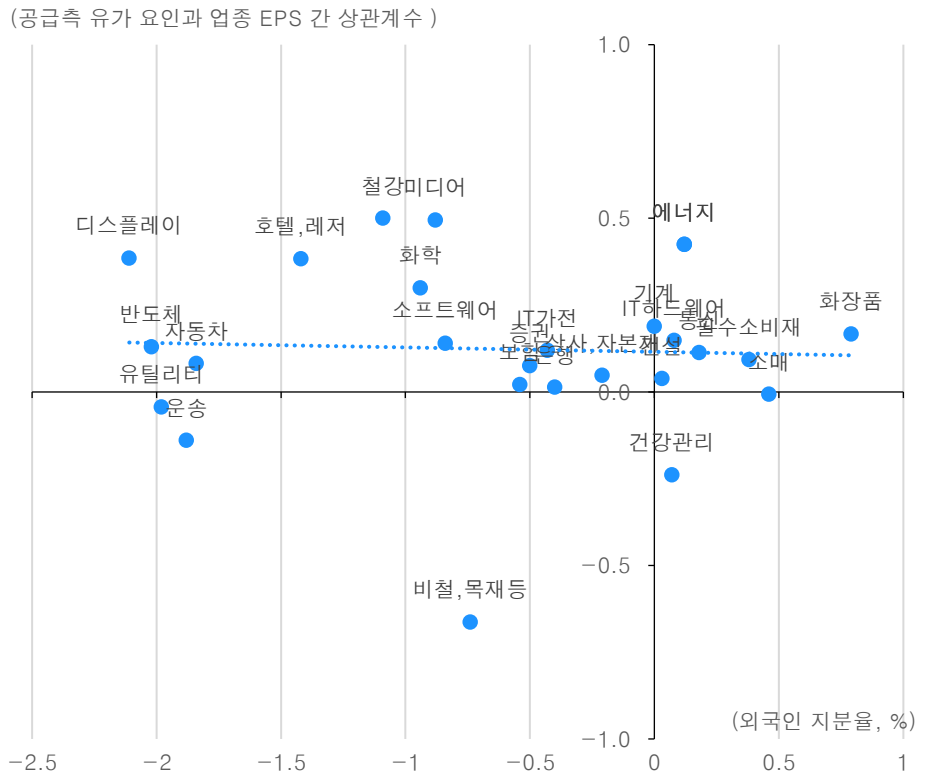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Reuter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수급 중요한 이유 : 유가가 핵심이지만 유가 상승 수혜 업종을 매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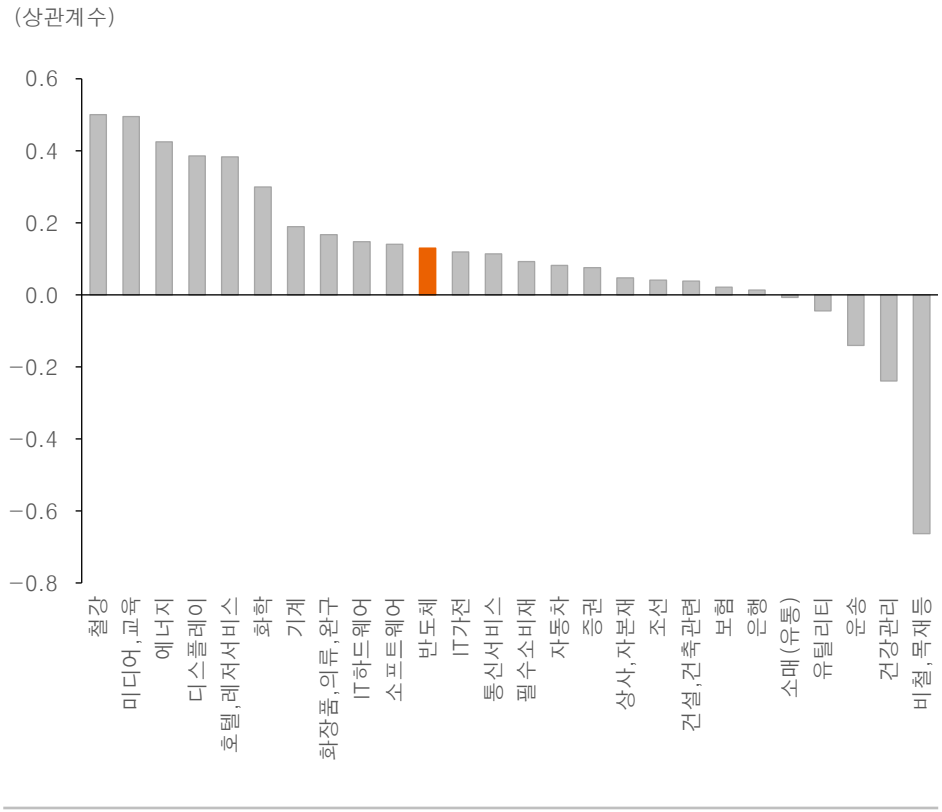
- 공급측 요인 발생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 하지만 과거 공급측 요인 발생과 업종별 EPS Growth 비교 시 공급측 요인 발생과 이익추정치간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업종인(유가 상승 반사 수혜) 철강, 미디어, 에너지 등의 업종 위주 매수세가 발생하지 않았음
- 따라서 단순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외국인 수급을 이해하면, 결국 현재의 EPS 추정치가 훼손되는(경기 침체, 휴전 협상 결렬 및 전쟁 재개)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익추정치 상향이 지속되는 와중 상대 수익률은 저조한 낙폭 과대 업종으로 외국인 순매수 재개가 기대된다는 결론

외국인은 유가 상승에 유리한 업종을 매수한 것이 아님- 차익실현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Reuter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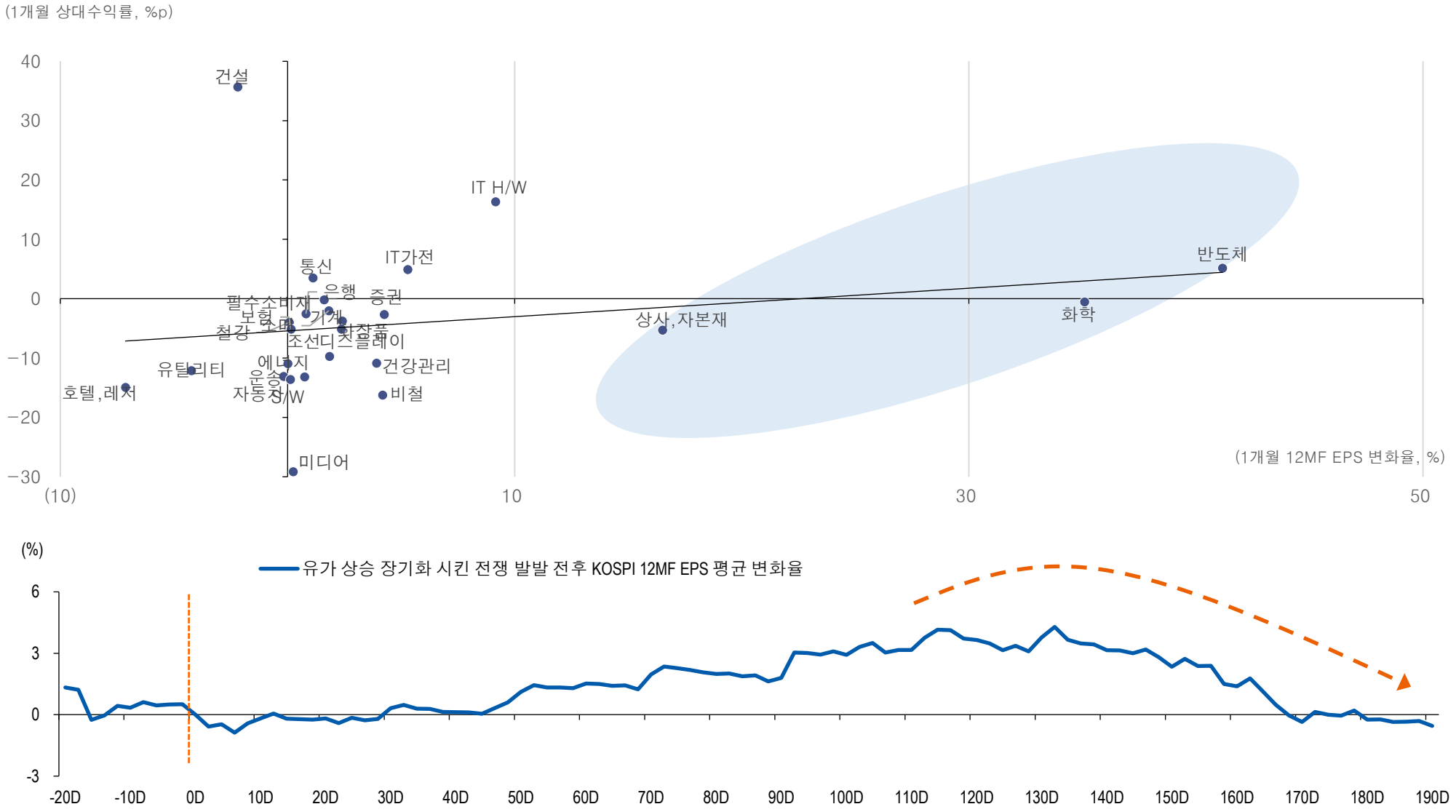
공급측 유가 요인과 업종 EPS Growth간 상관계수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Reuter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성공적 휴전 협상 진행된다면, 펀더멘털로 시선 이동 재개

유가 상승 장기화 Case (아래) 고려하지 않는다면, 낙폭 과대 실적 업종 다수에 시선 이동해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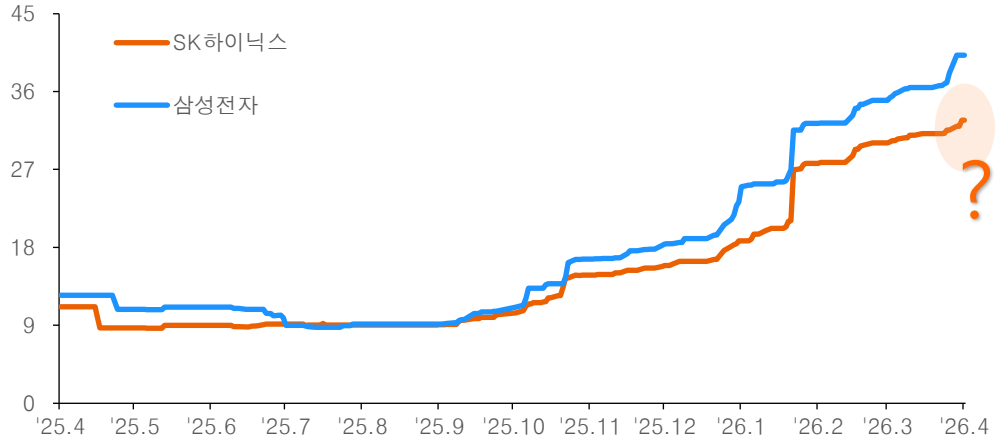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아이디어 ① 삼성전자 호실적? SK하이닉스도 남았다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이후 추정치 일제히 상향되며 KOSPI 밸류에이션 매력 강화, 다만 SK하이닉스는 아직 추정치 상향 안됨. 4월 23일 실적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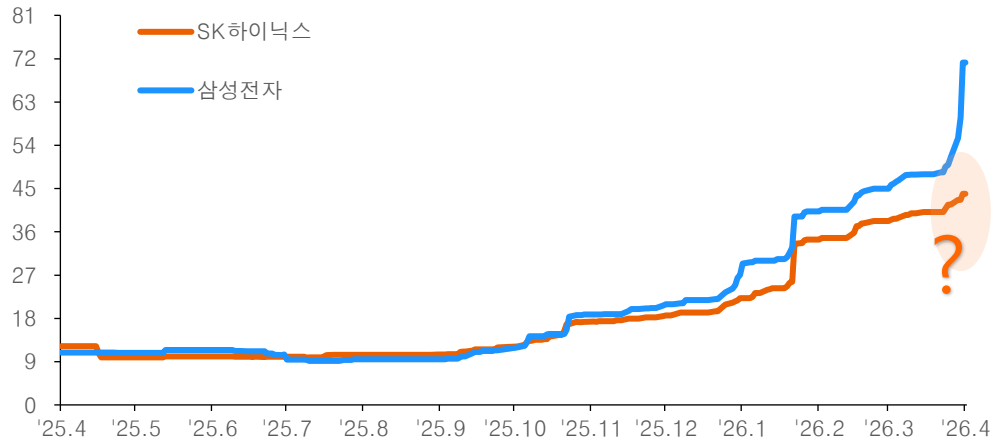
(조원)

[1분기영업이익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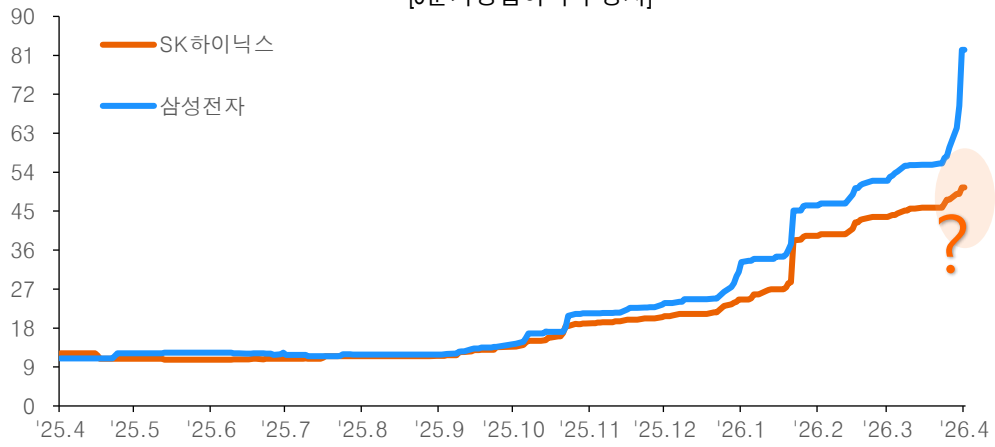
(조원)

[2분기영업이익 추정치]



(조원)

[3분기영업이익 추정치]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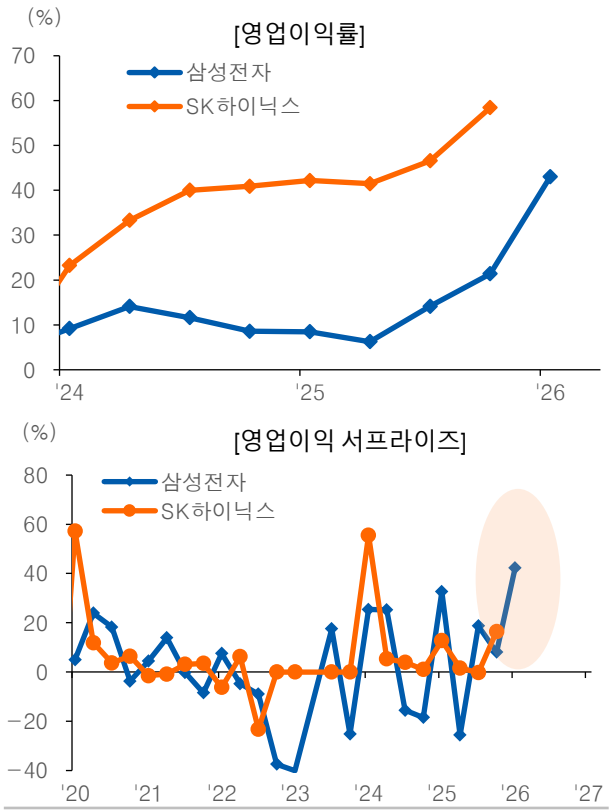
[4분기영업이익 추정치]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아이디어 ① SK하이닉스가 더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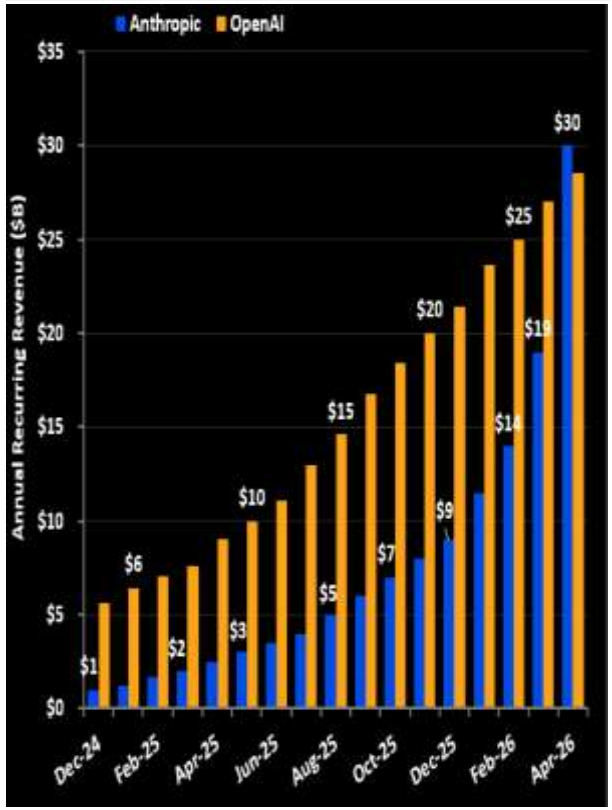
- 핵심은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투자가 지속 가능 한가? 임. 최근 앤트로픽의 ARR(연간환산매출)이 14개월만에 10억 → 300억 달러로 급증. AI 추론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증거. 앤트로픽은 아마존, 구글 양쪽에서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 브로드컴-구글 간 TPU 계약도 확정 됐으니 '인프라' 위에서 매출을 창출하는 상황.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수요 근거
- 삼성전자의 호실적도 호실적이지만, 호실적 요인인 메모리 사업부 위주 퓨어 플레이어인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기대되는 상황. 현재는 추정치 상향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KOSPI EPS 증가 야기. 밸류에이션 매력이 주가 하단 지지할 전망

SK하이닉스는 퓨어 메모리 플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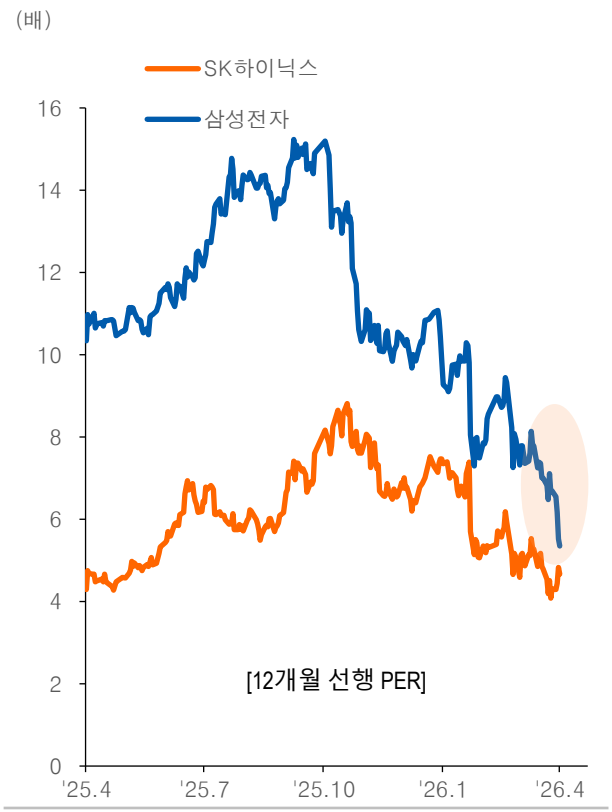
자료: :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앤트로픽 ARR 급증. AI 수요 = 매출 전환 중



자료: :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점점 더 싸진다



자료: :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아이디어 ② AI? 지정학적 갈등? 뭐가 됐든 에너지 수요는 증가한다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종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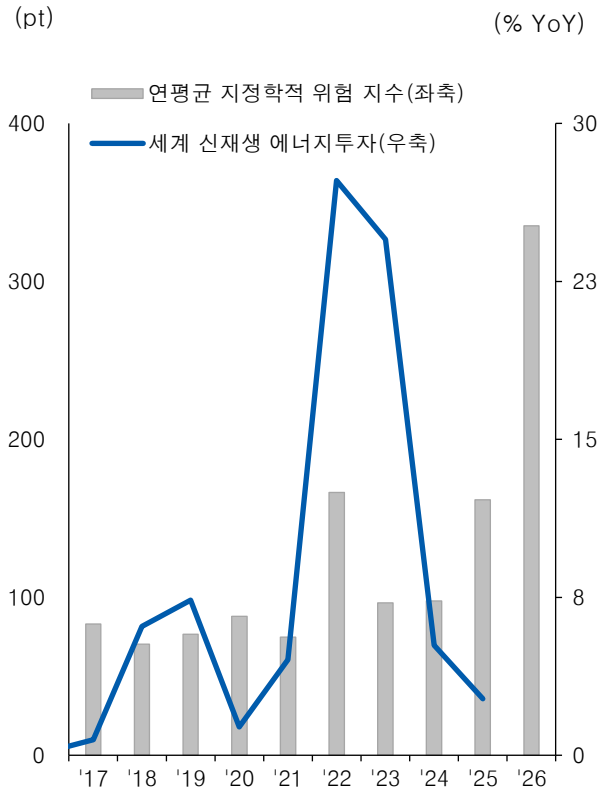
구분	주요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확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및 발전 비중 20% 이상 달성
화석연료 탈피 및 열전환	2040년까지 석탄발전 60기 단계적 폐지 가스 난방을 재생열로 전환하기 위한 열에너지 관리법 제정
녹색 제조 및 수송 전기화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 수소차로 달성
전력망 및 시장 개편	분산형 전력망 전환 및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 지역별 요금제 및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국민 참여 및 상생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실현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아이디어 ② AI? 지정학적 갈등? 뭐가 됐든 에너지 수요는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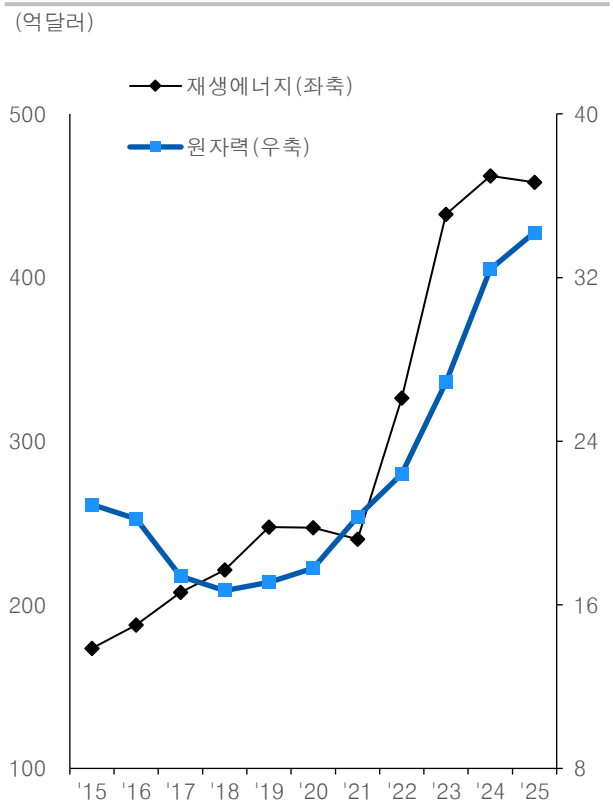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 에너지 투자 구조적 증가. 과거 러우전쟁 당시에도 에너지(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현정부 정책까지 결합된 장기 성장 트렌드가 될 전망
-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모두 동반 성장 국면 진입. 에너지 믹스 전환이 아닌 상황. 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자립 실현 통한 대외 충격 대비 시사

지정학적 위험 증가는 재생 에너지 투자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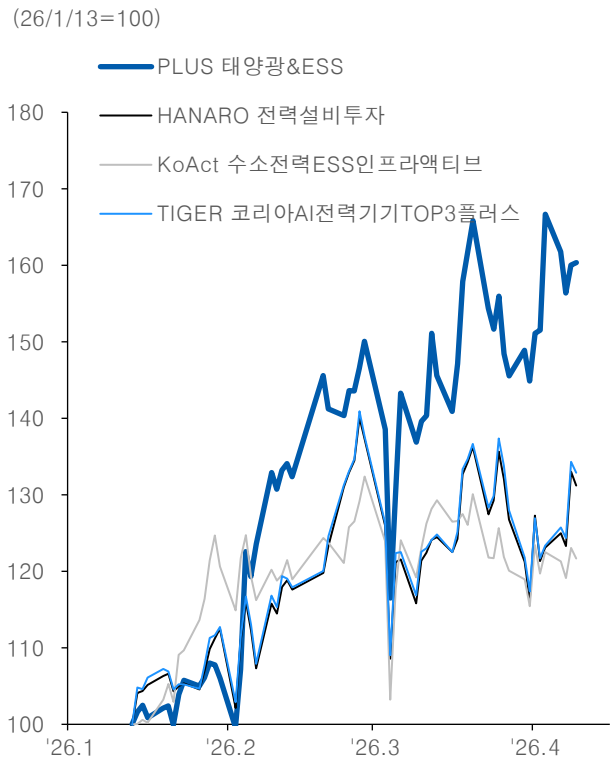
자료: IE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원자력, 재생에너지 투자액 모두 증가 추이



자료: IE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쟁에도 에너지 관련 주 주가는 견조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知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